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KAC 한국 예술원/문화창작예술학부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제1회 KAC 청소년 단편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보리아빠"
수상내역	인기상
작가	이수진
공모분야	시나리오
줄거리	유치원생 보리를 키우는 초보 아빠 지웅, 지웅의 여동생 예인, 보리의 유치원 선생님 소담, 보리와 함께 일어나는 일상 헤프닝을 다루었습니다.

S#1 옥탑방 옥상(아침)

따뜻하게 내리쬐는 봄 햇살, 옥상엔 축 처진 빨랫줄과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보리의 유치원복.

예인, 힘들게 장 봐온 장바구니를 들고 옥상에 올라오고 아니꼬운 눈빛으로 빨랫줄을 쳐다본다.

예인 (눈을 가늘게 뜨고 혀를 차며) 저것이 아빠냐 오빠냐...

예인,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낚아채듯이 유치원복을 걷는.

S#2 옥탑방 안

예인이 한 손엔 장바구니, 다른 한 손엔 유치원복을 걷고 들어오면 이불은 저만치 걷어내고 서로 꼭 껴안고 자고 있는 지웅과 보리.

예인, 큰 소리로 버럭 화를 내려다 둘을 보고선 잠깐의 실소를 터트린다.

예인 (보리를 살짝 흔들며) 보리야. 차보리.

칭얼대는 보리를 보며 한숨, 보리에게 둘러져 있던 지웅의 팔을 치우며 보리를 일으킨다.

예인 유치원 버스 아까 갔어, 오늘 주먹밥 만든다며?

보리, 피곤한 듯 눈을 비비다 갑자기 커지는 눈. 까먹고 있었던 모양이다. 금방 울상이 된 표정, 고사리 손으로 지웅을 마구 흔든다.

보리 (소리 지르며) 아빠! 아빠 일어나!

지웅, 보리를 짹 끌어 안아버리며 5분만 5분만, 한숨 쉬는 보리.

보리 (기어들어가는 목소리) 오늘 주먹밥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화들짝 놀라 일어나는 지웅, 커진 눈으로 보리와 예인을 번갈아 쳐다본다.

이내 예인을 찌려보며

지웅 (쏘아붙이듯) 넌 네 조카가 뭐하는지 관심도 없냐?

냉장고에 장봐온 것들을 넣어놓던 예인, 순간 짜증이 났는지 단호박을 들어 지웅에게 던진다.

예인 (화내며E) 너는 아빠가 돼서 네 딸 알림장 체크도 안하냐?

지웅 이게 어디서 오빠를 때려? 학교도 안가고!

예인 오늘 휴강이라고 몇 번을 말해 멍청아!

지웅, 단호박 맞은 팔이 아픈지 다른 손으로 팔을 감싸며 불쌍한 표정으로 보리를 쳐다본다. 보리, 자기 아빠를 때린 이모가 싫은지 예인을 손가락질하며

보리 (소리치며) 이모가 우리 아빠 왜 때려! 우리아빠 잘못된 거 하나도 없거든!

예인 (더 소리 지르며) 조그만 게 어디 이모한테 손가락질이야!

예인의 큰소리에 기가 죽은 보리, 그런 보리를 지웅이 무릎 위에 앉혀 감싸 안는다.

지웅 저게 왜 내 딸한테 난리야! 빨리 안 나가?

예인 더러워서 간다 가! 나가! 차도 아직 없는 게, 잘 먹고 잘살아라!

예인, 둘을 갈잡게 쳐다보다 획 문을 열고 나가버리면 지웅과 보리 눈 마주친다. 웃긴 듯 서로 쳐다보며 하하하 웃다가 보리를 꼬옥 안는 지웅.

지웅 (미소) 우리 공주님 이제 유치원 가야지. 아빠가 데려다줄까?

보리 진짜? 그럼 우리 썩썩카 타고 가는거야?

지웅 (살짝 뜸들이다) 그럼, 우리 보리 썩썩카 타고 유치원가야지. 빨리 씻고 와. 혼자 씻을 줄 알지?

보리, 고개를 힘차게 끄덕이며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간다. 그런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지웅. 시계를 쳐다보니 시간이 빠듯한 듯 하다. 급하게 일어나서 자전거 키를 들고 밖으로 나간다.

S#3 가린 유치원 앞

유치원 앞에 세워진 여러 대의 승용차들, 그 사이에 힘겹게 들어 온 낡은 자전거 한 대, 낡은 자전거에서 당당하게 내리는 남자, 지웅이다. 얼른 보리를 번쩍 안아 올려 내려준다. 지웅, 보리를 쳐다보면 보리가 유치원 모자를 거꾸로 쓰고 있다. 보리의 키에 맞춰 쭈그러 앉아 보리의 모자를 다시 씌어주며

지웅 (아쉬운 듯) 우리 공주 레드카펫도 멋지게 깔아줘야 되는데,
 보리 아니야. 주먹밥 아빠 꺼 까지 꼭 만들어 올게. 갔다 오면 고스톱 치는 거야!
 지웅 (웃으며E) 애 또, 조심해서 갔다 와 다치지 말고!

꼬덕이는 보리, 지웅이 손가락으로 툭툭 자기 볼을 치면 보리가 지웅 볼에 쪽, 뽀뽀를 한다. 지웅도 똑같이 보리 볼에 뽀뽀. 보리의 손을 놓으면 보리, 어디론가 씩씩하게 달려간다. 어떤 여자의 손을 잡는데, 소담이다. 뒤를 돌아 지웅에게 손을 흔드는 보리. 지웅도 손을 흔드는데 소담이 돌아본다. 지웅, 얼굴이 빨개진다. 헛기침하며 살짝 고개 숙여 인사를 한다. 이내 시계를 보고 소담을 보더니 급히 다시 차를 타는 지웅, 소담도 빙긋이 웃으며 고개를 까딱, 보리, 무언가 이상기류를 눈치 챈 듯 킁킁 웃어댄다.

S#4 가린 유치원 구름반 (낮)

아이들끼리 어울려 놀고 있는 유치원, 아이들을 지켜보다 한숨 고개 돌린 소담, 그녀의 책상 앞으로 마주앉아 웃는 보리.

소담 (나긋하게E) 보리야 왜?
 보리 (웃으며)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담 (E) 선생님한테 할 말 있어?
 보리 (도리도리)
 소담 (E)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생긴 거야?
 보리 (도리도리 고개를 내젓고) 선생님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소담 (예상 밖의 질문에 놀란 듯) 응응? 뭐라고?
 보리 우리아빠가, 살아가면 한번쯤은 사랑하는 사람이 꼭 생긴다고 했어요. 선생님은 있어요? 없으면 소개시켜줄 수 있는데..

소담 (얼굴이 붉어지며) 아.. 선생님은 아직..

보리,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확신에 찬 눈빛. 그새 수줍은 듯 몸을 돌려 친구들에게로 뛰어가 버린다.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까딱이는 소담.

S#5 무한기업 면접장 대기실 (낮)

면접 준비에 열심인 두 남녀 사이에 끼서 아무 것도 못하고 수험표만 꼭 쥔 채 시계만 보는 지웅, 애꿎은 시계만 뵈히 쳐다보더니, 예인에게 전화를 건다.

예인 (F) 왜?
 지웅 (자신 없는 목소리) 난데.. 오늘 하루만 나대신 보리 좀..(말하려는데)
 예인 (F) 밥도 차려줘, 돈도 벌여와, 내가 다 하는데 보리까지 맡기려고?
 지웅 (애원) 나 오늘 면접이란 말이야.. 오늘만 보리 좀 봐주라.
 예인 (놀란 듯F) 면접? 그걸 왜 말을 안 해?
 지웅 (E) 105번 차지웅님. 들어오세요 / 야. 나중에 전화할게. 부탁 좀 하자

덜컥 전화를 끊는 지웅, 핸드폰을 쳐다보며 미안하다 예인아. 반복해서 말하더니 가슴에 달린 면접표를 쳐다본다. 105번 차지웅. 그 커다란 글 옆에는 활짝 웃고 있는 지웅의 사진. 큰 한숨 한번 내쉬고 면접장 안으로 들어간다.

S#6 가린 유치원 앞 (오후)

보리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예인, 지웅이 면접을 잘 봤는지 걱정되는 듯 표정이 점점 굳어진다. 유치원에서 나온 보리, 소담의 손을 꼭 잡고 있다. 예인을 보며 반가운 듯 이모! 라고 부르며 예인이 쳐다본다. 보리가 소담의 손을 놓고 달려가서 예인에게 안긴다.

예인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왔어?
 소담 (자랑하는 듯) 응! 주먹밥도 만들었다!

예인, 피식 웃으면 소담이 다가와 예인과 인사를 나눈다. 살짝 어색해지려는 기류 속에 흐름을 깨고 보리가 만든 주먹밥을 건네는 소담. 주먹밥을 보더니 놀란 듯한 표정을 짓는 예인과 그걸 보며 뿌듯해하는 보리.

예인 (놀란 말투) 이거 보리가 만든 거예요?
 소담 네. 원래 보리가 야무진 애잖아요. 한번 가르쳐줘도 잘해요.
 나중엔 친구들 도와주기도 술선수범하구요.
 예인 (부끄러운 듯) 하하하, 애가 절 좀 닮았거든요. 제가 요리 하나는 기
 막히게 잘해서..
 소담 아~ 보리가 엄마 많이 닮았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야무진가?

 어..엄마? 당황한 예인.
 무언가 말을 잘 못한 것 같다는 것을 깨달은 소담.

 예인 아.. 저 엄마 아니예요. 이모예요 이모.
 소담 (무안한 듯) 아 그럼 엄마는..?
 예인 (무언가 말을 꺼내려다 말고, 보리 손을 꼭 잡으며)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바빠서요. 먼저 가볼게요.

보리에게 인사하라며 재촉하는 예인, 영문도 모르고 인사를 하는 보리와
 급하게 멀어져가는 둘을 바라보는 소담. 말을 잘못 꺼낸 것 같아 마음이
 심란해진다. 뒤돌아 가려는 소담 앞으로 퇴근하는 우현, 짧게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만 건네고 풀죽은 듯 돌아가는 소담을 말없이
 바라본다. 가만히 바라보다가 멀어지는 예인과 보리의 뒷모습을 보곤,
 집으로 향한다.

S#7 옥탑방 안 (저녁)

먼저 들어와 있는 지웅,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듯 말없이 지웅과 예인,
 보리가 찍힌 사진을 쳐다본다.
 (E) 문 열리는 소리.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면, 예인과 보리다.

보리 (지웅에게 달려가는) 아빠!
 지웅 (보리를 번쩍 안아들며) 우리 공주님 오셨네~
 예인 보리 선생님 뵙고 왔어.
 지웅 (보리를 내려놓으며 예인을 보는데)
 예인 (보리 쳐다보며) 보리야. 주인아줌마 집 잠시만 갔다 와.

빠진 듯 문을 열고 나가는 보리,

보리가 나가고, 다시 말을 잇는 예인

예인 보리 엄마, 어떡할거야?
 지웅 어떡하긴 뭘 어떡해..
 예인 보리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보리 엄마 살아 있잖아. 찾지도 않을 거야?
 지웅 (소리가 살짝 커지며) 네가 무슨 상관인데,
 예인 보리 아직 엄마 필요해, 언제까지 내가 대신.. (말하려는데)
 지웅 지 새끼 키우기 싫다고 도망간 여자야. 싫다는 여자 나도 억지로 잡기 싫어.
 예인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어떻게 사람이 그래, 보리 생각은 안 해?
 지웅 이 면접 잘 돼서 취업하면, 진짜 보리 남부럽지 않게 해 줄거야.
 예인 (약간의 침묵) 말로만?
 지웅 나가.

수건을 두르고 씻으러 화장실로 들어가 버리는 지웅,
 예인, 울먹이다가 애써 터지려는 눈물을 닦고 조용히 밖으로 나간다.

S#8 골목길

집 대문 앞에 쭈그려 앉아있는 보리, 집 안에 들어가려는 우현과 눈이 마주친다. 놀라는 우현, 그런 우현을 보며 웃는 보리.

보리 어, 피카츄 아저씨!
 우현 (서울말 쓰러 애쓰며) 아.. 보리 여기서 뭐해?
 보리 (금세 풀이 죽으며) 이모가 나보고 나가래요..
 우현 (놀라서 금세 사투리로 바뀌며) 나가라 했다고?
 보리 (고개 끄덕이며) 그러니까 아저씨, 나랑 놀아요.
 우현 (작은 목소리로) 뭐 그딴 여자가 다 있노..
 보리 뭐할까요? 가위바위보? 엄마놀이? 고스톱?
 우현 음.. 엄마놀이, 그거 하자.
 보리 그럼 내가 엄마! 아저씨는 아빠해요~
 우현 (당황스러워하다가 이내 웃어버리는)

S#9 골목길

우현과 보리, 둘이 꼭 붙어 여보~ 하며 나름 즐겁게 엄마놀이 중인데, 대문을

열고 예인이 나간다.

보리 이모, 이모!

예인 (힘 빠진 듯 보리 보며) 보리야. 이제 집 들어가.

플래시백>8췌

보리 (금세 풀이 죽으며) 이모가 나보고 나가래요..

우현 (마음의 소리E) 저 가시나가 아를 놔두고 뭐하노!

우현, 예인에게 당당히 걸어가서 예인을 쳐다보며, 당당히 말하는데

우현 (화내며) 니 보리한테 와 그라는데, 네가 보리 엄마라도 돼?!

우현, 갑자기 나온 버릇에 자신의 입을 막고, 당황해하다가 크게 웃어버리는 예인.

예인 (픽 웃으며) 당신 누군데 하라 마라야. 부산에서 오셨나봐요?

우현 (버럭 대며) 부산이 아니고 진주에서 왔거든! 내 여기 하숙생이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라는 눈빛으로 보리를 안고 들어가 버리는 예인, 투덜대며 따라 들어가는 우현.

S#10 옥탑방 안 (낮)

보리는 유치원에 가고, 팔자가 늘어져 코까지 골며 자고 있는 지웅, 갑자기 크게 울리는 벨소리에 알람인 줄 알고 핸드폰을 들어 던지려다 핸드폰에 찍힌 전화번호를 본다.

C.U> 지웅의 핸드폰

미간을 한껏 찌푸리며 전화를 받는 지웅.

지웅 여보세요.

소담 (F) 아, 보리 아버님 맞으세요?

지웅 보리가 누구.. 아 예, 맞는데요.

소담 (F) 저는 가린 유치원 보리 담임선생님인데요.

지웅 (눈이 번뜩 떠지며) 아 예, 안녕하세요.

소담 지금이 유치원 상담주간이라.. 실례지만 언제 한번 유치원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보리 때문에 드릴 말씀도 있구요.

지웅 (옷을 주섬주섬 입으며) 아니요 실례는 무슨, 지금 가겠습니다. 예. 예.

전화를 끊고, 후회되는 듯 머리를 헝클어는.

S#11 가린 유치원 교무실

면접 때 보다 긴장되는 듯 옷까지 수트로 짝 빼입고 앉아있는 지웅, 요구르트까지 홀짝 마시며 교무실 문만 쳐다본다. 지웅의 앞에는 빈 요구르트 병만 열댓 개.

(E) 문 열리는 소리

소담이 들어오고, 지웅은 벌떡 일어선다.

소담, 앞에 쌓여진 요구르트 병을 보고 피식,

소담 바쁘셨을텐데, 죄송해요

지웅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소담 일단 자리에 앉아서 말씀드릴게요.

지웅과 소담, 마주보고 앉는다.

소담 (약간 뜸을 들이며) 뭐 보리가 무슨 잘못을 한건.. (말하려는데)

지웅 왜요? 애 손톱으로 또 긁었어요?

소담 (피식) 아니요, 아니에요. 보리가 요즘 유치원생활을 너무 잘해요. 예의도 바르고..

지웅 (웃으며) 아이.. 그거 저 닮아서 그런거예요. 칭찬 많이 해주세요.

소담 (약간의 침묵) 아 그리고.. 보리가 엄마 이야기를 잘 안하던데..

지웅 (멈칫, 표정이 굳어지는) 아.. 예..

소담 저번에 데리러 오셨던 여자 분은..

지웅 제 동생입니다.

소담 실례지만.. 어머니께서는 많이 바쁘신가요?

지웅 (한숨 쉬며) 보리 엄마 없어요. 저 혼자 키우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소담 (말을 괜히 꺼냈다는 듯 미안한 표정)

지웅 아, 괜찮습니다. 자주 겪는 일이니까요. 그럼 저 먼저 일어나.. (말하려는데)

소담 제가 보리 엄마 역할을 잠깐 도와드려도 될까요?

지웅 (무슨 소리인가 싶어 쳐다보면)

소담 (부끄러워 고개 숙이는) 그 나이 때는 엄마가 필요한데, 혼자 기 죽으면 안되지않아요.

소담, 고개를 올려보면 싱긋 웃어주는 지웅, 따라 웃는 소담.

S#12 옥탑방 옥상 (낮)

우현, 피자 한판 사 들고 옥탑방에 올라가 문을 두드린다. 왜 안 나오지 싶어 한번 문을 더 두드리니, 어딜 가는 지 차려입은 예인이 문을 연다.

예인 어, 간첩, 여기 왜왔어?

우현 (병쳐서 아래위로 예인을 몇 번이나 훑어보는)

예인 (피식) 왜, 누나 이쁘냐?

우현 됐고, 피자 가져왔어요.

예인 이야, 너 피자도 먹을 줄 알아?

우현 (목소리 작아지며) 거기도 피자 팔거든요.

예인 됐고, 아이스크림 먹을래?

우현 (무심하게 쳐다보는)

예인 (살짝 짜증나는 듯) 아 먹을 거야 말거야?

우현 (목소리 기어들어가는) 먹어요..

예인 가자. 누나가 쏜다.

우현의 허리를 감는 예인, 귀가 빨개지며 가만히 서있는 우현.

예인, 귀엽다는 듯 쳐다보다 우현 데리고 나간다.

S#13 가린유치원 앞 (저녁)

소담과 상담을 마치고 나온 지웅, 울리는 전화를 받으려 번호를 보는데 어디션가 많이 본 번호다. 설마.. 설마.. 하며 전화를 받는다.

직원(F) 차지웅씨 핸드폰 맞으시죠?

지웅 네, 그런데요.

직원(F) 무한기업입니다. 면접에 합격 되셨습니다.

지웅 (떨리는 목소리) 네..? 뭐라구요?

직원(F)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전화를 끊는다. 믿을수 없어 불을 끄집어보는 지웅.
 아프다. 신나서 집으로 뛰어가는데,

S#14 옥탑방 안 (저녁)

기가 죽어있는 보리, 지웅, 눈치 보다가 보리를 살짝 찔러보지만 반응이 없다.
 딸, 보리야, 공주님, 아무 소용이 없는데

지웅 왜 그래 우리 딸, 피자 맛없어?
 보리 (가만히 고개 숙이는)
 지웅 누가 혼냈어? 아빠한테 말해봐.
 보리 (말하다가 울먹이는) 오늘..
 지웅 (깜짝 놀라서 보리 옆으로 가는) 왜 왜 그러는데?
 보리 운동회 연습했는데 숨이 차서 못 달렸어, 그래서 1등하고 싶었는데 꼴찌 했어, 아빠한테 자랑하려고 했는데..
 지웅 (가만히 말 듣다가 안아주는) 괜찮아 우리 딸. 잘했어 네가 1등이야.
 보리 숨이 안 쉬어져. 왜 그러지? 나쁜 일 많이 해서 아빠 말 안 들어서 하나님이 혼내시는 거 아니야?
 지웅 아니야. 우리 딸 아빠 말 얼마나 잘 듣는데, 걱정하지 말고 얼른 이거 먹자.
 보리 (고개를 끄덕이다) 근데 아빠. 나도 놀이공원 가보고 싶어
 지웅 (갑자기 보리가 하는 말에 보리 쳐다보는)
 보리 수현이랑 민재는 엄마아빠랑 간대.. 나도 가고싶어.
 지웅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이번 주말에 우리도 갈까? 보리 놀이공원 한번도 안 갔지?
 보리 (고개 끄덕이는)
 지웅 그래 우리 딸, 가자. 놀이공원 가자.

베시시 웃는 보리,
 뭔가 생각이 난 듯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지웅.